

# 서울대 교양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 백종현 교수와의 인터뷰



대학의 교양교육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대학의 교양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번 호 <열린 지성>의 기획 기사에서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의 운영위원회·비전총괄 분과의 위원장으로 참여하셨던 철학과 백종현 교수님으로부터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2008년의 주요 업무 계획과 특히 교양 교육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백종현 교수님이 제시하는 서울대교양 교육의 의미와 청사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1. 대학에서 '교양 교육'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교양을 '널럴한' 과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인간의 교육·성장 과정은 대나무와 같습니다. 대나무가 굽어지려면 죽순 때 자리를 잘, 널찍이 잡아야 해요. 시간이 가면 점점 단단하고 견고해질 뿐 틀이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릴 때 이 틀을 키워주는 게 대학 교육에서의 '교양'이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양을 고교 수준에서 마치고 대학에서는 전공만 공부하는 유럽과는 달리, 우리 대학은 미국식과 비슷해서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는 일반 교육(교양)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교양 교육의 필요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공에 들어가면 전공 공부를 훨씬 우선시하기 때문에 학부제로 뽑아 전공을 늦게 정하게 하는 건데, 사실 적이 없으면 갈팡질팡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공 이전의 기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토대를 닦는 기간이라는 느낌을 주게끔 교양 교육 제도를 짜 주어야 합니다.

교양의 영역에서 말아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목과 식견을 높이는 겁니다. 둘째, 비전공자에게 상식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식은 칼과 마찬가지로 양면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장일 수도, 흉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이전에 인성·덕성·식견·가치관이 필요한데, 이것이 교양이 제공해야 할 영역이지요. 대개 연세 지긋하고 학문 연찬도 높으신 선생님들이 핵심교양을 맡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획득할 지식의 활용법인 '식견'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사회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이지요. 교양이 단순히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한다면 학원과 학교의 차이도 없을 뿐더러, 극단적으로는 강사가 '훌륭한 인간'일 필요도 없습니다.

교양은 인간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40대가 되어서도 기억에 남고, 나중에 곱씹어볼 수 있는, 의식 뒤편에 침전되어 있다가 불현듯 나타나는... 자기도 모르게 인생을 지배하는 자양분이 교양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학생 여러분이 교양을 '쉬어가는' 수업으로 본다면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 상당수를 잃게 되는 겁니다.

## 2. 핵심교양 역시 '자연의 이해' 영역을 '자연과 기술/생명과 환경'으로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나요?

모든 것은 백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양을 세분화하기 이전에는 55~58%가 인문대 주관이었고, 30%가 자연대, 5%가 사회대 몫이었습니다. 이걸 적정 비율로 재분배하다보니 핵심교양 분과를 인문대 2개(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자연대 1개(자연의 이해), 사회대 1개(사회와 이념)로 정하고, 학생의 소속 단과대를 제외하고 3개 분과 9학점 이상을 수강하게 한 거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이과 계통 학생들은 문과 수업에서 3개를 듣게 되는데, 인문사회계에서는 '자연의 이해' 하나만 듣게 되는 겁니다. 과학의 시대라는 21세기에 필요한 상식이 많이 부족해지는 거죠. 결국 인문사회계 학생들에게 '자연의 이해'를 두 과목 이상 수강하게 하려는 전체 구도 하에서 '자연의 이해'를 '자연과 기술/생명과 환경'으로 분리하게 된 겁니다.

사실 본래 있던 '자연의 이해' 과목들을 분류만 달리 해서 2개 파트로 만든 거라 강의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자연의 이해' 2개를 듣는 대신에 현행처럼 1개만 수강하고 '학문의 기초' 중 '수량적 분석과 추론/과학적 사고와 실험' 중에서 1개를 대신 들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3. 고전 교육의 강화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핵심교양이나 고전 선정 등은 하버드 등 해외 우수 대학을 모델로 한 것이지만, 그들과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우리 학교는 학부생 숫자가 많고, 학생들 자체도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고전 선정에 있어서도, 서양에서는 서양서만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동서고금의 읽을거리가 많으니 공통분모가 적어서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요.

고전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그 자체가 핵심 교양의 취지 중 하나인 만큼 새로이 과목을 만들기보다는 이쪽에서 활용하는 방향을 택해야 할 겁니다. 나의 경우에는 교양 수업 때 글쓰기 주제 5~6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면서 참고 도서 목록도 같이 주는데, 각 주제 당 적어도 한 권 이상은 100선에서 뽑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고전에서 찾고, 자신의 특수한 생활 체험으로 예증하라는 게 내 수업 글쓰기의 지침이지요.

문제는 고전 100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0권 중 적어도 20여권은 교양에서 소화시키자는 공감대 하에서 실제 교양 수업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 취지를 알리는 데 더욱 힘써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4. 자유 전공제 도입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관해 조금만 귀뜸해 주세요.

한때 내가 자유 전공제 연구 책임자였는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장점을 살리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 자유전공은 옛 학제에서의 예과를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2년은 교과와 교과 외 과정 훈련을 강화하는데, 문과는 어학, 이과는 수학과 물리만큼은 어디에 가도 될 정도로 탁월하게 키워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 없이는 허울이 되고 모두가 LEET, MEET로 가 버리고 맙니다.

만일 자유전공을 도입한다면 학생 열 명에 40~50대 초반 교수 한 명을 배정해서, 과외 수업은 물론 기숙사 생활까지 지도시켜야 합니다. 이들을 맡는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기존 학과 시스템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충분히 하고, 교수와 상담해 확실하게 연계성이 있는 전공을 설계시키는 것이지요.

로스쿨 때문에 법대가 폐지되면서 남게 된 정원으로 이를 시도하지는 의견이 있는데, 94명으론 문·이과 각 45명 뿐이기 때문에 너무 적고, 적어도 우리 학교 총 정원의 5%는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에 말해서 문과 대학원 정원을 조금 줄이고 70:80, 75:75 정도로 150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만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약점을 보완해나가야 하는데, 새 제도인 만큼 약점만 부각되기가 쉽습니다. 자유전공제도 '싫다'는 이유로 협조가 잘 안 되고, 결과론적으로 실패하고 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이 큼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5. 선생님께서 직접 교양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철학개론, 일반교양, 2학년 수업, 3학점), 교양에 대한 담론들을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실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도 알려 주세요.



나는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은 논쟁사입니다. 일반교양인 ‘철학개론’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도 ‘지금 내 관점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는 훈련과 함께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주려 합니다.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는데, 60명이 들어오면 1/4 정도가 수강을 취소합니다. 대개 이과생인데, 숙제 탓이지요. 이과 학생들에겐 이 수업이 거의 유일한 철학 수업일 텐데 이들을 위해서 좀더 쉽게 수업하고자 합니다. 학생 상태를 알고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빡세게’ 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육자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가르치고, 배우겠다’는 최소한의 전제가 공유될 때 그들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균형점이 필요하지요.

특히 이과 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취소하는 건 대개 글쓰기 숙제 때문인데, 고급 지성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야만 정확성과 함께 전송될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옛말에 구슬이서 말이라도 꿰어야 한다

고 하죠? 특히 학문은 모든 것을 글로 표현하니 글쓰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양 과목에서 글쓰기의 기본을 습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글쓰기 수업을 따로 운용하고, 핵심 교양에도 글쓰기 지도 조교를 별도로 배치하고 있지만 일반교양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장차 확대해야 하는데, 당장은 학교에서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수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경우 BK연구로 받는 조교에게는 연구와 전공 수업을 담당시키고 학교에서 배당하는 조교는 교양 수업 보조를 맡깁니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책임이자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기사에서는 백중현 교수님께 ‘교양교육’이 함축해야 할 여러 가지 의미와 서울대 교양 교육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들어보았다. 강의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교과 체제이지만 각종 이수 제도가 탄생되기까지의 고심과 고민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글 : 이명지